5대 제사와 십자가 생활화

(레6:8~7:38)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0.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2.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며
13.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긴 본문으로 <5대 제사와 십자가 생활화>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5대 제사와 십자가 생활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리 거듭 말씀을 드려도 그 중요성에 미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와 교인으로 교회생활하면 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조직의 조직원으로 머물러 있다가 삶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선민의 표식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선민은 미국에 있어도 선민이고 한국에 있어도 선민이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에 있어도 선민으로 이렇게 각 나라별로 선민이 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진짜 우리의 형제입니다. 혈육상의 형제는 선민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일본의 아베수상의 손자가 선민일 수 있고 아베수상의 손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나라 가정에서 내 진짜 형제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 선민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이북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까? 미국에서 십자가 생활화하라고 미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일본에서 십자가 생활화하라고 일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한국에서 십자가 생활화하라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 밑에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내 밑에 이런 자식과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가정에서 십자가 생활화하라고 그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직장에 다니고 옆집은 저 직장에 다니고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직장

에서 십자가 생활화하라고 그 직장을 주신 것이지 그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족부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 직장인이 되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선민은 이 착각에서 벗어난 자가 선민입니다. 내게 애인을 주신 이유는 그 애인을 만날 때 십자가 생활화하라고 주신 것이고, 나에게 이웃과 친구를 주신 이유는 이웃과 친구를 만날 때 십자가 생활화하라고 주신 것이고, 자식을 주신 이유는 자식과 만날 때 십자가 생활화하라고 주신 것이고, 부부로 사는 이유는 배우자와 만날 때 십자가 생활화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명은 무엇이고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냐고 묻고 따지고 차이점을 분별해 낼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선민에게 공통된 사명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모양을 띠는 사명의 내용들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면서 채워 가십니다. 선교사로 나가도 선교지에서의 사명은 십자가 생활화이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목회현장에서 사명은 십자가 생활화이고, 가정주부도 가정에서 가정을 돌볼 때 그의 사명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가정주부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교사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3자의 공통적인 사명은 오직 십자가 생활화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학가들과 문학작품조차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성경 66권속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내용과 모든 말씀은 백 가지의 계명, 천 가지의 율법, 만 가지의 규정이 오직 십자가 생활화 단 하나를 통하여 다 성취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성취되어 가지만 이 십자가 생활화 하나가 잃어지면 아무리 윤리적인 의식을 불태워도 도덕적 관심을 일깨워도 단 하나의 계명도 평생 동안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정말 무지렁이 같이 윤리적 자질과 도덕적 자질이 그야말로 아주 낮은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생활화 하나를 꾸준히 지속하는 동안에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의 율법이 다 지켜지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과 은혜의 크기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적이고 표피적이고 실천적으로 십자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 생활화 단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고 하는 이 점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되게 했고 부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것저것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규례들과 규정들에 얽매어서 교회생활이 무거운 짐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헛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낼 때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십자가사건을 다시 한 번 내 사건으로 확인시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바자회하고 각종 위원회로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 단 하나만을 삶의 현장 어디에 머물든지 행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신앙생활이 부정확하니 은혜도 부정확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번제를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말씀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과 논리적 당위성을 날마다 새롭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는 현장이 아니면 십자가는 교리와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경말씀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대전제 하에서 성경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십자가의 논리적 당위성을 어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십자가는 교리와 지식의 차원을 뚫고 나와서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말씀으로 선포될 때 오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됩니다.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지식으로 알고 교리로 알고 있는 십자가는 생활화될 수 없고 삶의 파도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고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오늘의 번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번제 부분만 읽었는데 또다시 5대 제사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그 규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5대 제사와 차이가 있다면 규정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규정을 말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5대 제사가 한꺼번에 총괄되어서 나오고 만인제사장시대의 우리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관점에서 썼다는 것은 적어도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오늘날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5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제사장들이 구분되었던 구약시대 때에 5대 제사를 행해서 5대 제사의 의미가 선민들에게 미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십자가 생활화 단 하나를 통하여 완전하게 충족되어 5대 제사의 의미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복음이 5대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합쳐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대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십자가생활화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얘기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5대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날마다 확인되고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대 제사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참으로 신기한 일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에 대한 얘기를 다 해왔어요. 그리고 내가 만인제사장시대의 제사장으로 5대 제사를 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신기한 것은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서 네 개의 기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말씀의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휘장이 가려져 있고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법궤 쪽에서 출입구 쪽을 향하

여 왼쪽으로 진설병 떡 상이 있고 오른 쪽으로 등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구가 법궤는 번제의 의미와 연관이 되고, 분향단의 의미가 소제의 의미와 연관이 되고, 진설병 떡 상이 화목제의 의미를 나타내고, 등대가 속죄제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이 네 가지 기구가 뜻하는 제사의 의미들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서 범죄가 나타날 때 결과적으로 빚어지는 손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의 네 가지 기구의 의미를 알고 충족시키는 삶을 살면 내 인생에 삼중 손해가 없는 것이고, 그 네 가지 기구가 뜻하는바 제사의 의미가 충족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손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를 알 때 이 네 가지 기구가 바로 5대 제사의 의미와 연관이 되면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번제와 속죄소가 뜻하는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는 것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내 육체(목숨)가 살아있는 게 생명이 아니고 내 인격이 살아있는 것이 생명으로 지정의의 전인격체인 인격이라는 존재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는 것인데,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 온 것을 죽이는 일이 번제입니다. 돈, 사업, 가족, 명예, 권력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이유가 지정의 활동인 인격의 활동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뜻하고 있고 어떻게 삶을 느끼고 있느냐는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을 들여놓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게 해주는 역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속죄소가 법궤 위의 뚜껑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발로 몸으로 짓는 범죄의 근원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죄가 성립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해서 범죄를 해야 죄인 것이 아니라 범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고,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이면 돈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자식 때문이라면 자식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소제로 마음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시선이 구름위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인데 번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로 '알라'라는 동사에서 나왔고 '알라'는 '올라가다'의 뜻으로 우리말의 '올라가다'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것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

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가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인격이 하나 될 수 있는데 이게 번제예요. 소제는 번제라는 단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이 계속해서 구름위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마음이 일단 구름위로 올라갔으면 구름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구름위에 머물러 있기 위한 의미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지금 구름위의 하늘을 바라봄으로서 내 인생의 시간들이 나의 의지와 계획안에서 뭉텅이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가루가 돼야 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 가루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해서 철판에 굽든지 화덕에 굽든지 물에 삶든지 하는데 이 반죽으로 뭉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가루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의 삶을 보면 열일곱에 노예로 팔려가서 삼십 세에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열일곱에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십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방랑생활을 하다가 왕이 됩니다. 이런 인생의 구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므로 요셉과 다윗은 언제나 지금 내 머리 위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드림이 없으면 번제에서 올라간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의 의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살다보면 마음의 지성소에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마음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마음이 지속되려면 모든 순간에 내일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소제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번제로 하늘로 올라간 마음이 하늘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때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옆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진설병 떡 상이 의미하는 화목제의 의미가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 문제에서 마음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착각이에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기도시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잎이 흔들리면서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집니다. 떡의 존재이유가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진설병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화목(和睦)이 쌀이 각 사람의 입에 균등하게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부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부른 상태, 만족한 상태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목(睦)'자의 뜻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부를 때 등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상14:27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호한 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 왕이 모든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싸우다 보니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배가 고픈 가운데 꿀을 지팡이에 찍어서 입에 댔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잘못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겼을 때 얻게 되는 그 식량들을 먹어가면서 싸우게 했더라면 블레셋을 훨씬 더 많이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인데 꿀을 찍어 입에 대기만 해도 눈이 밝아졌는데 음식을 먹었더라면 밝아져서 얼마나 더 잘 싸웠겠느냐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굶주립니다. 굶주리면 뭔가를 먹기 위해서 찾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돈, 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먹지 못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 자식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건강, 건강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에게 오래 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느끼는 것뿐이지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인데, 이게 다 굶주림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맛을 모른 채로 화목제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는 소제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고, 소제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으면 번제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으면서 이 대면의 시간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처럼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굶주려서 이 세상의 것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먹지 못해 굶주린 상태에서 어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 상태에서의 비전, 꿈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목사님이 십년 뒤에 천명의 교인을 만들겠다면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선민이 아니에요. 목사이기 이전에 선민이 아니고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어둠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범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범죄지만 계명만 어긴다고 범죄가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게 다 범죄입니다. 어둠속에 있기 때문에 등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성막의 기구들과 연결되어서 성막전체가 나의 마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형도인데 이게 온전치 못할 때 하는 모든 행동은 속건제가 뜻하듯이 그냥 하는 일마다 손해가 되고 하는 일마다 상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 한 나를 잃어버리고 나는 나의 유일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할 모든 이웃들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이것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번제의 의미가 충족되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구름위에 있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올라간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하늘에 머물러 있기 위한 소제의 의미가 충족되고 그렇게 마음이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목제의 의미가 충족되어 배부르되 진설 병 떡 상처럼 배부르고 그렇게 배부름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처럼 그동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올바른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등대의 의미가 밝혀져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범죄가 아닌 상태가 될 때 복음이 주는 온전한 모든 은혜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오직 십자가 생활화 단 하나로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으로 가시면류관 쓰시고 살이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죽고 장사되어서 사흘 동안 땅에 묻히신 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은 순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한다니 이렇게 번민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이 구름위에 있는 주님 따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비로소 내 몸은 구름아래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구름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삼위일체 성령님과 함께 있고 내 몸은 이 땅에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 5대 제사의 의미가 충족돼야하고 5대 제사의 의미가 충족되는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단 하나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십자가 생활화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서 그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또 마음이 세상으로 내려왔으면 또 다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구름위의 하늘에 마음을 머물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함께 나누며 우리 스스로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데 십자가 생활화 이 말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고 더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무엇이라 감사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생활화 한 가지만 하는데 인류가 각 곳에서 각 종교에서 추구하는 모든 진리와 행복이 진짜로 참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인지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